

정치 유머의 통역 전략에 대한 소고

Humor in Political Speeches and Interpreting Strategies

저자 (Authors)	이미경 Lee, Migyong
출처 (Source)	번역학연구 20(4) , 2019.10, 141-163(23 page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20(4) , 2019.10, 141-163(2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번역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25833
APA Style	이미경 (2019). 정치 유머의 통역 전략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 20(4), 141-163
이용정보 (Accessed)	고려대학교 163.***.133.25 2022/02/21 13:4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정치 유머의 통역 전략에 대한 소고

이 미 경
(경희대)

1. 서론

의사소통에 있어 유머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타난 유머는 즐거움 전개를 더욱 흥미롭게 하고 말장난 등의 유머는 공감을 형성하고 대화를 풍성하게 만든다. 정치연설에서도 유머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작가인 데이비드 리트(David Litt, 2016)는 연설문에 유머를 포함시키기 위해 고민한다고 말하면서 유머는 “권위자에 대한 선입견을 씻어내 주고 칼을 갈고 있는 상대방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게도 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청중의 집중력을 유지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통역의 과정에서 유머는 몇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유머는 기본적으로 청중이 유머에 대해 반응하여 의도한 효과를 얻었을 때 성공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데 단순히 웃음 자체가 목적인 코믹이던지 아니면 냉소적으로 비난하는 풍자이던지 실시간으로

이러한 효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둘째, 도착어 청중이 유머를 이해하도록 하려면 연사와 도착어 청중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 및 사회, 문화적 배경의 격차를 매우는 개입이 요구되는데 시간적 제약 하에서 이미 여러 작업을 다중 처리 하고 있는 통역사에게 추가적인 정보처리 역량을 요구해서 통역사가 개입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시통역은 통역사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인지능력의 한계에 가까운 포화상태에서 정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언어적 문화적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 연설에 나타난 유머와 이를 통역하는 전략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치 연설에서의 유머를 선택한 이유는 연사가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유머를 사용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를 유머 효과의 창출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사는 정치적 맞수를 풍자하여 비난하거나 자기 비하의 유머를 하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등 의도를 가지고 유머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연사는 유머를 통해 웃음 유발 효과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전제 하에 이 과정에서 통역사는 어떻게 의도한 효과를 이끌어내고 성공적으로 유머를 통역하는지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통역사가 선택하는 전략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창구를 제공할 수 있다.

유머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유머 유형을 분류하고 다양한 전환 방식을 분석하는데 치중하고 있다(Raphaelson-West 1989; Leibold 1989; Nilsen 1989). 그나마 번역의 과정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각 유머 유형에 적합한 방법론을 모색하여 형태적 및 의미적 등가를 찾기 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론의 모색은 한계에 직면하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역의 경우는 번역보다 시간적 제약이 더욱 크고 실시간적인 유머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통역사는 가장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성공적으로 유머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을 추구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통역사의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앗셔(Asscher 2010)에서는 영국 유머의 히브리어 번역 사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머의 언어적 증가는 확대(amplification) 그리고 과장표현(overstatement)이라는 전략적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 가족 시트콤을 중심으로 미디어 유머에 대한 내용분석을 한 김균수(2014)에서도 코미디 소재로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를 중심으로

여성을 희화화의 대상으로 한 유머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머가 종종 극단적인 속성으로 흐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통역은 통역사는 유머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표현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축소, 생략, 직역 등의 방식보다는 확장(amplification) 그리고 과장된 표현(overstatement) 등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실시간으로 유머를 전달하고 유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통역 전략을 모색하는데 집중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고자 한다. 먼저, 유머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기저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지원(2007)은 웃음 유발 효과는 비예측성에 의해 생성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문맥의 부조화나 상황의 비약 또는 메타텍스트적 비동질성으로 인한 비예측성이 유머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통역의 과정에서 통역사가 이러한 비예측성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고려하여 통역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출발어에서의 유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역의 과정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지 실제 정치 연설에 나타난 유머와 그 통역을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1년과 2016년 2차례의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연설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을 실험상황에서 10명의 학생통역사가 통역한 내용을 녹취, 전사하여 분석했다. 통역은 최대한으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실제 상황을 녹화한 영상물을 보면서 실시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와는 달리 동일한 연설에 대해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을 각 1회씩 통역했고 각각 결과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전문통역사가 아닌 실험 상황에서 통역을 전공하는 학생이 통역한 내용을 분석했다. 통역과정에서 통역사가 시간적 인지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다수의 통역사가 사용하는 전략을 살펴보는 편이 의미 있으며 특히 다수의 통역사가 선택한 어떤 전략적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면 향후 통역 과정에서의 전략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통역사가 선택하는 전략이 시간의 제약이 가해졌을 때 변화하는지 변화를 한다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결과에서의 통역사의 전략을 비교분석했다.

2. 유머 효과와 통역 전략

2.1 유머의 생성 기제

유머의 효과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유지식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말한다. 유머의 많은 부분이 부조화(incongruity)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부조화는 예상치 못한 반전, 기대에서 벗어남이 있을 때 만들어진다. 따라서 먼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지식이 있고 동일한 전제 하에서 시작이 되어야 부조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지식을 프레임, 스크립트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로페즈(Lopez 2002)에서는 “유머는 공유된 장 또는 프레임이 있어야 대화자 사이에서 과거 그리고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을 공유하게 된다. 유머는 대부분 공유된 지식 그리고 기억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언어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유머의 대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나라의 국민성을 과장해서 그러한 면이 초래하는 비합리성을 유머의 소재를 삼는 경우가 있고 한 나라의 국민성을 정형화하거나 국민의 특성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 경우도 있다. 교황이나 목사 등의 종교 지도자, 정치인, 유명인은 누구라도 유머의 소재가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측면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거나 유머의 대상이 갖는 정형화된 모습을 웃음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다. 가령 유대인이나 러시아인 독일인은 과도하게 투철한 절약정신, 비효율성, 융통성이 없는 성향 등이 웃음거리로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렇듯 유머는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경우나 기대하거나 예측했던 수순을 벗어나는 경우 웃음을 유발한다.

유머의 원리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조화 이론(Incongruity Theory) 그리고 우월감 이론(Superiority Theory)을 유머를 형성되는 주요 요소로 설명하는데 (Brock 2017) 부조화란 기존의 인지 참조의 모델에서 벗어나는 모든 자극(stimulus)을 부조화라고 인식하며 이러한 부조화는 의미의 부조화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형태, 사회적 규범, 화용론적 기능, 텍스트 장르의 부조화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인지 스키마를 벗어나는 흐름을 의미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정 상황으로서 상호 배타적인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상반된 두 가지 스크립트로 인해 인지과정에 충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웃음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이다. 이는 아타르도(Attardo S. 1994)가 구어로 전달된 유머(General Theory of Verbal Humor)의 6가지 파라미터에서도 설명하고 있다.¹⁾ 아타르도는 부조화는 두 가지 생각이나 상황이 서로 어울리지 않거나(mismatch) 예측을 벗어나는(violation of expectation)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관행(habitual customs)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생각을 엮거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pairing of ideas or situation) 모두 부조화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월감이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월등하다고 느끼고 이겼다는 감정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쌓아간다는 설명이며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거나 일반적(norm)이라고 간주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대상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놀리는 내용이 우월감 이론에서의 주된 웃음을 이끌어내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임지원은 유머의 담화²⁾를 생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요인으로 비예측성(unexpectedness)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수용자가 예측하고 있던 말과 생산자에 의해 실제로 나온 말 사이에서 생겨나는 부조화”로 정의한다(2007:151). 광고에 나타난 유머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에서 임지원은 유머의 생성 기제를 맥락의 불일치, 메타텍스트적 비동질성 그리고 상황의 비약으로 세분화 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생성 기제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정해주는 조건이 예측가능성이다. 예측가능성은 수용자가 텍스트의 해석과 관련하여 펼쳐볼 수 있는 예측의 범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비예측성은 수용자의 예측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비예측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측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비예측성이 높을수록 이에 비례해서 유머 효과도 높다. 그러니까 왜 유머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경우는 유머러스할 수 없고 메타텍스트적으로도 원텍스트와의 구조적 동질성을

1) GTVH에서 유머의 패러미터로 제시한 6가지는 script opposition, logical mechanism, situation, target, narrative strategy, language 이다.

2) 본 연구에서는 유머라 함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간의 긍정적인 감정의 한 요소로써 웃음을 생성시키는 말과 행동의 통합 명칭이라고 정의하고 유머 담화는 유머를 이용한 화자가 청자를 상대로 웃음을 발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일정한 틀을 지닌 이야기라고 정한다.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동떨어진 경우나 상황적으로 개연성을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경우도 유모 효과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2.2 통역 전략

유머 통역을 위한 전략은 두 가지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통역의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유머를 도착어로 전환하는데 용이한 전략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통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시간적 제약, 실시간 정보처리 등 통역사가 발휘할 수 있는 정보처리 능력의 한계라는 측면을 고려한 방법론의 제안이어야 한다. 둘째, 통역을 위한 전략의 제안은 많은 한계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통역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상황과 의미가 전달되는 맥락은 매번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상황이 재연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유머 통역에 적용 가능한 타당성이 검증된 전략을 제안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방향성이 확인된 제안이어야 한다(Ribas 2012:814).

질(Gile 2009)에서는 통역의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전략(strategy)과 기술(tactic)을 구분한다. 전략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행되는 계획된 행동을 의미하고 대응방안은 통역의 과정에서 통역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려 취하는 방법을 분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앓셔(Asscher 2010)는 영국 유머의 히브리어 번역 양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머의 번역은 출발어의 내용을 재현(revival)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좀 더 풍요롭고 재미있게(enrichment)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렇게 전달된 내용이 도착어 독자/청중에게 수용가능한 방식(acceptability)으로 전달 되도록 번역사가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수용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적 중개의 과정에서 번역사는 좀 더 많은 자유 또는 재량을 갖고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앓셔는 이렇게 유머의 번역과정에서 세 명의 번역가 Taviov, Epstein, Burla가 선택한 확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규정지었다.

1. 새로운 매우 창의적인 도착어 표현을 추가한다. ⇨ 번안, 추가
2. 중립적인 어휘 선택을 감정이 담긴 어휘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eat 대신에 devour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 확대, 강조
3. 숙어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더욱 수사적인 어역의 표현을 사용한다.
⇨ 확대, 강조
4. rather이나 quite 등 표현을 약화하는 헤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위에서 설명한 전략이 유머를 통역하는 과정에서 유머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통역사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에 3장에서 실험을 통해 실제 통역의 과정에서 통역사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데이터 수집 및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및 피험자

본 연구에서는 정치 연설에 나타난 유머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연례행사인 백악관 기자단 만찬 연설을 분석했다. 이 연설을 분석하고자 한 이유는 이 특정 행사는 다른 회의장에서의 연설과는 다르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이며 유머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연설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연설이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위트가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전 세계 언론과 사람들이 주시하고 기대하는 연설이기도 하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분야의 시사적인 주제에 대해 언급을 하고 특히 정치적인 주제와 정치인 등에 대해 풍자하는 기회로 유명하다. 특히, 2011년과 2016년 연설은 오바마대통령이 연설을 할 뿐만 아니라 유머러스한 동영상상을 제작하여 보여주기도 했고 영화의 한 장면을 인용하거나 사진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점이 유머 내용과 통역 전략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1년과 2016년 2차례의 연설 중 일부분을 각 연설에서 발췌해서 사용했다. 연설 실황을 여러 방송사에서 녹화한 영상이 여러 개 유

투브에 올려있기 때문에 그 중 연사의 모습뿐 아니라 청중의 반응도 파악하기 용이하고 가시성이 높게 촬영된 동영상상을 선택했다. 2011년 연설 18분 54초 중 12분 분량과 2016년 연설 33분 01초 분량 중 20분 분량을 통역하도록 의뢰하여 그 내용을 분석했다. 동영상상의 전체를 통역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는 정치 유머의 통역전략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연설의 후반에 진지한 어조로 백악관 기자단을 대상으로 언론의 역할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 논하는 마무리 부분은 제외했다.

피험자는 연설의 동일한 동영상상을 시청하면서 동시통역 그리고 순차통역을 각 1회씩 통역했다. 따라서 원문 연설의 길이는 총 32분이고 이를 두 번에 걸쳐서 통역해서 총 분석 데이터의 길이는 64분이다. 피험자는 서울에 위치한 통번역대학원에서 동시통역을 전공하고 있는 2학년 학생 10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한영과 전공자(A언어 한국어, B언어 영어)이며 20대-30대의 연령의 학생이다. 순차통역을 공부한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동시통역은 이제 한 학기를 훈련한 상태이다. 피험자들은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듣고 통역을 실시했다. 동시통역은 한 번에 동영상상을 시청하면서 실시했고 순차통역은 약 2분 간격으로 끊어서 청취하고 통역했다.

3.2 분석 방법

본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정치연설에서 사용된 유머를 살펴보고 유머 효과의 생성기제로서 비예측성을 연사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비예측성을 최대한 강조하면서 통역하기 위한 전략이 특히, 확대, 과장 표현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설명했듯이 유머는 그 의도한 효과를 창출했을 때 즉, 청중이 웃음으로 반응했을 때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통역사는 유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가정이 본 분석의 출발점이다. 데이터의 분석을 실시하여 유머 효과를 위한 통역사의 개입이 도착어 발화에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표현의 전략을 항목으로 나누어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이 나타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통역 전략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서 앞의 유머 효과를 위한 통역사의 개입이 순차통역 대비 동시통역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통역은 시간적인 제약이라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통역사가 역량을 발휘하는데 많은 한계가 따른다. 이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많을수록 통역사는 가장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해서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동시통역과 비교했을 때 순차통역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약하다고 말한다. 특히, 순차통역은 통역사가 도착어를 표현하는 발화속도를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연사에 의해 주도되는 동시통역보다 수월하다고 설명하지만 순차통역의 재구성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통역사는 여러 가지 작업을 다중처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가능한 인지역량을 안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텍스트의 도착어 통역을 비교하여 통역사가 유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비교한다면 시간 제약이 통역사의 통역 전략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데이터의 분석은 먼저 연설문에서 유머가 사용된 부분을 발췌했고 2011년 연설에서 18개, 2016년 연설에서는 30개의 유머를 분석대상으로 정했다. 피험자는 전체 연설을 시청하면서 통역을 하지만 유머가 사용된 부분의 도착어 표현을 집중적으로 비교분석 했다. 2011년 연설은 순차통역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 동시통역을 실시한 반면에 2016년 연설은 동시통역을 먼저 실시하고 그 후 순차통역을 실시했다. 통역방식을 바꾸어서 실시한 이유는 연설의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이 통역 전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순서를 바꾸어서 실시했다. 피험자의 통역은 녹음해서 분석을 위해 전사했다.

유머의 분석은 일차적으로 연사가 사용한 유머의 효과는 어떻게 발현되는지 비예측성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통역은 일차적으로는 통역의 표현 전략을 통해서도 연사의 목적에 부합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선택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대 및 과장표현 등이 나타났는지를 분류했다. 학생들이 아직 동시통역을 훈련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동시통역의 과정에서 의미의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여러 곳 있었다. 그러나 분석의 과정에서는 통역전략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 오류가 발생한 부분도 상관없이 표현 전략을 분류했다. 분석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유머를 통역할 때 통역사가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확장 또는 과대 표현을 했는지 그 전략을 분류했

다. 또한, 통역사가 선택한 통역 전략이 각각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의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했다.

4. 분석결과 및 논의

4.1 유머 생성기제: 비예측성

연설에서 사용된 유머를 분석한 결과 비예측성이 유머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험자들이 통역을 한 32분 동안 오바마대통령은 2011년 연설에서 18회, 2016년 연설에서는 30회 유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유머 효과가 만들어지는지 분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 정치 연설에 나타난 비예측성 유형

	맥락적 불일치	메타텍스트 비동질성	상황적 비약
2011년	6	3	9
2016년	14	2	13

비예측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ST1: Of course, in fact, for months now congressional Republicans have been saying there are things I cannot do in my final year. *Unfortunately, this dinner was not one of them.* (2016)
- ST2: For example, some people now suggest that I'm too professorial. And I'd like to address that head-on, *by assigning all of you some reading that will help you draw your own conclusions.* (2011)

많은 논문에서 유머 담화의 생성 기제로 맥락의 불일치(incongruity)를 설명하고 있다. 유머는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우선 의외성과 기발함을 이용한 웃음을 유발시켜 청중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이때 비예측성을 지녀야 하고 이 중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반으로 뒤에 이어지리라 예측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맥락의 정보가 이어질 때 맥락의 불일치로 인한 유머 효과가

만들어진다.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그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ST1을 보면 이제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화당 위원들이 몇 달 전부터 임기 말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다는 말로 발화를 시작한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청자가 기대하는 정보는 그래서 이런 저런 일을 못했다 혹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하며 일을 감행했다 등의 맥락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안타깝게도 오늘 이 행사는 주의사항에 없더라고요” 라는 예측을 벗어난 답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단 만찬에 참석하기 싫어하는 속마음을 표현한 점이 과도하게 솔직해서 유머 효과가 나타났다. ST2를 보면 임기 초기에 주변 사람들 특히 오바마 비판자들이 대통령에 대해 평가하면서 사용한 표현은 “professorial”이라는 단어였는데 이는 교수스럽다는 표현보다는 과도하게 딱딱하고 원칙적이고 가르치려 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오바마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왕 가르치려 든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아예 과제까지 낼까 합니다. 나뉘드린 문헌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오기 바랍니다”라고 의도적으로 청자들이 예측과는 다른 맥락의 답을 해서 웃음을 자아냈다.

ST3: Now, I know you were a little tense when the GOP tried to cut your funding, but personally I was looking forward to new programming like “*No Things Considered*” or “*Wait, Wait...Don't Fund Me.*” (2016)

ST4: I've even let down my key core constituency: movie stars. Just the other day, Matt Damon said *he was disappointed in my performance. Well, Matt, I just saw “The Adjustment Bureau,” so right back atcha, buddy.*

ST3과 ST4의 메타텍스트적 비동질성의 사례는 맥락의 불일치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메타텍스트의 비동질성 자체가 웃음을 유발하는 기제이다. 주로 패러디나 시리즈 형 유머가 메타텍스트적 유머 담화에 속하는데 위의 ST3의 경우는 미국의 NPR이라는 라디오방송에서 진행되는 유명한 프로그램인 ‘All Things Considered’를 패러디한 제목이 웃음을 자아낸다. ST4의 경우는 백악관을 배경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영화와 실제 오바마 대

통령의 백악관에서의 생활을 대비시켰으며 주인공인 대통령 역할을 연기했던 배우 데이먼의 연기능력을 오바마 본인을 정치능력에 대한 평가에 빚대어서 언급한 부분인데 영화와 현실이라는 텍스트의 비동질성이 유머를 이끌어내는 부분이다.

ST5: Good evening, everybody. It is an honor to be here *at my last – and perhaps the last* –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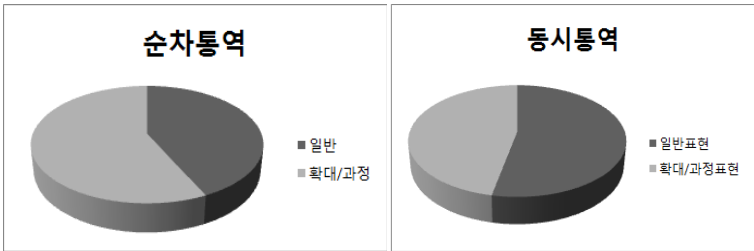
ST6: As some of you heard, *the state of Hawaii released my official long-form birth certificate*. Hopefully this puts all doubts to rest. But just in case there are any lingering questions, tonight I'm prepared to go a step further. Tonight, *for the first time, I am releasing my official birth video*.

마지막으로 상황의 비약은 상황이 예측성을 벗어나게 전개되어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이다. ST5 그리고 6 모두의 사례를 보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비약이 있다. ST5의 경우는 미디어와 관계가 좋지 않은 트럼프 같은 인물이 대통령직에 취임했을 경우 아예 기자단 만찬 행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로 상황을 비약하고 있고 ST6에서는 논란이 되어 온 출생지 관련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 출생증명서가 아니라 출생 비디오를 준비했다고 청중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어서 유모를 자아낸다.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는 통역의 과정에서도 불일치, 메타텍스트의 비동질성, 그리고 상황의 비약에 기반을 둔 비예측성을 통역사가 포착하고 필요한 경우 도착어 청중이 예측 가능한 범위로 전달될 수 있도록 격차를 메워주거나 필요한 개입을 하여 전달하는 통역 전략을 모색한다면 의도한 유머 반응을 얻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특히 본 연구의 관심인 정치유머는 다양한 시사적 주제와 사회적 배경이나 실존 인물이 소재로 사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연사와 수용자가 전제하는 공유지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배경지식을 공유하지 않는 도착어 청중의 경우에는 예측가능한 범위가 낮고 유머 반응을 얻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통역사는 유머의 생성 기제인 부조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석하고 수용자인 청중이 유머를 받아들이기 위해 예측 가능한 범

위 내로 맥락, 메타텍스트 그리고 상황의 부조화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전략이 연사가 의도한 유머 효과를 우선적으로 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2 표현 전략: 확대, 강조 및 과대 표현



〈표 2〉 확대, 과장, 강조 표현 빈도

	통역 방식	횟수
2011년	순차통역	53.8% (97회)
	동시통역	44.45% (80회)
2016년	동시통역	46.7% (140회)
	순차통역	57% (171회)

총 10명의 피험자의 통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연설문은 순서를 바꾸어서 각각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을 1회씩 실시한 후, 도착어 통역을 분석했고 가장 먼저 도착어 표현이 확대, 강조 및 과장 표현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위 표2의 분석 결과는 세부적인 분류는 하지 않고 유머가 사용된 부분을 통역한 내용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표현이 확장, 강조 또는 과대 표현이 있었는지 측면만을 살펴본 결과이다. 분석의 결과 확장 및 과대 표현, 강조 표현 등이 나타난 표현이 거의 반에 가까웠고 특히 통역을 실시한 순서를 불문하고 순차통역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순차통역의 경우는 통역사가 재표현을 할 때 발화의 속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개입의 여지가 많은 방식인데 순차통역에서 통역사의 표현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확대, 강조 그리고 과장표현이 포함이 된 부분이 순차통역은 2011년과 2016년 각각 53.8% 그리고 57%였으며 동시통역의 경우에는 44.45%와 46.7%였다는 점은 통역사 역시 유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음에 대

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통역사의 통역에서 좀 더 강조하고 유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출발어에서는 웃음을 유발했던 부분이 매우 평이하게 설명을 하듯 통역된 경우가 있었고 유머의 비예측성이 적절하게 대비되어 나타나지 않아서 재미있게 들리지 않는 부분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외에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유머로 그러한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유머 효과를 끌어내기 힘든 유머가 있었고 정치상황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유머도 있었다. 특히 정치연설에서는 인물 이름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정치적 관계, 외교 관계, 정치인 등 미국 내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지식을 전제한 유머가 다수 있었는데 이러한 유머는 출발어 연사와 도착어 청중 간의 배경지식의 격차를 메워주기 위한 노력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유머효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다.

4.3 확대, 강조 및 과대 표현 유형

유머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통역의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방법(tactic)을 분류해본 결과 다양한 방식으로 통역사는 표현을 확대, 강조 또는 과장되게 표현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특히, 통역사가 자주 사용한 방법 중 하나는 억양, 강세 등 준언어적 요소를 이용한 개입이었다. 갑가지 말하는 스타일을 바꾸어서 매우 친근한 표현으로 변하는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유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2.2에서 설명했듯이 어휘의 선택측면에서 좀 더 강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선택하는 방법이나 아예 도착어 청중이 친숙한 매우 숙어적인 표현, 도착어 문화에서만 존재하는 표현 등이 사용되었다.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일반적으로 동시통역의 과정에서 통역사는 표현을 할 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꺼리고 다양한 형태의 주저함(hedge)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유머를 통역한 표현에서는 이러한 주저함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역에서 나타난 표현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억양, 강세를 이용한 확대 표현:

ST: For example, some people now suggest that I'm too professorial. And

I'd like to address that head-on, by *assigning all of you some reading* that will help you draw your own conclusions.

TT: 사람들이 대통령이 너~무 가르치려 든다고 비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께 과제로 읽을거리를 나눠 드릴 테니 *각자 결론을 도출해 오시기 바랍니다*.

ST: Good evening, everybody. It is an honor to be here *at my last – and perhaps the last* –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TT: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제 임기 마지막 기자회견 만찬에서 뵈게 되어 기쁩니다. 하긴, 임기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히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 외에도 “나이를 한 살도 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낱자를 세고 있습니다,” “밤을 꼴딱 샅습니다” 등 강조를 하거나 강세의 변화를 심하게 주거나 부사 등을 통해 강조하는 표현, 말투를 교수처럼 하여 통역한 부분이 나타났다. ‘아주,’ ‘무척,’ ‘굉장히’ 등의 표현도 있었고 일반적인 표현도 더욱 강조해서 ‘똑같이’ 말하다 등으로 강조하는 표현을 빈도 높게 사용했다.

2) 표현의 추가

ST: (Entrance music: “When I’m Gone” by Anna Kendrick.) You can’t say it, but you know it’s true.

TT: 노래 들리시죠? 말은 안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첨언으로 “000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어찌겠습니까?” “냅다 뺏어갔습니다, 아주 낱아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허영심을 이미 꺾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등의 방식으로 설득을 하거나 동의를 이끌어내듯 부가 표현을 문장의 끝에 반복해서 추가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있었다.

3) 도착어 청중이 친숙한 표현 사용한 과장

ST: I will be officially a lame duck, which means Congress now will flat-out reject my authority. And Republican leaders won’t take my

phone calls.

TT: 6개월 후면 뒷방노인네죠 의회에서는 이제 제 권한을 내놓고 무시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화도 안 받더군요.

이 외에도 도착어 독자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bathrobe를 “잠옷”으로 표현한 경우나 counting the days till my deathbed를 “얼마나 살겠는지” 또는 “몇 년 뒤에 죽을지 고민하는 나이가 되었다” 등으로 변경한 표현이 있었다. 이 외에도 “고리타분한 친척 아줌마”, “진짜배기”, “늙은이” 등의 표현도 문맥에서 과장되게 들리면서 웃음을 자아냈다.

4) 말투나 말하는 스타일의 변화를 통한 과장

ST: I've even let down my key core constituency: movie stars. Just the other day, Matt Damon said *he was disappointed in my performance*. Well, Matt, I just saw “*The Adjustment Bureau*,” so right back atcha, buddy.

TT: 저의 가장 핵심인 지지층까지도 실망시켰습니다. 영화배우 매트 데이먼 인데. 저한테 대통령직 수행에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저스트먼트 뷰로라는 영화를 보니까 데이먼 대통령, 당신도 남의 말 할 처지는 아니예요.

ST: You all look great. The end of the Republic has never looked b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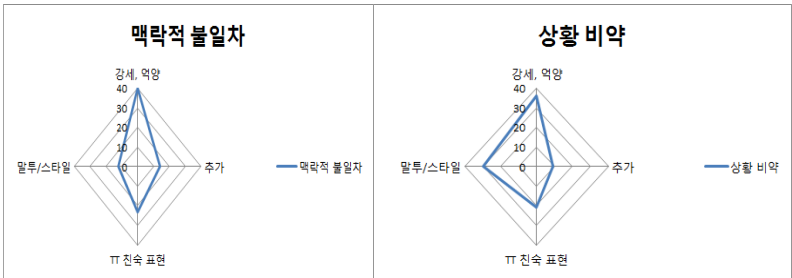
TT: 한 공화국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자기야 얼마 안 남았어. 진정해”, “정말 대단하죠?” “욕설을 쓰고 계신가요?” 등의 앞의 발화와는 전혀 다른 말투로 특정인에게 발화하는 스타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역시 과장되게 들리면서 웃음을 자아냈다.

4.5 유머 생성기제 vs. 통역 전략

마지막으로 유머의 생성기제인 맥락의 불일치 그리고 상황적 비약이 통역의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한 방향으로 통역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메타 텍스트적 비동질성은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했다.

〈표 2〉 통역 전략 비교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맥락적 불일치가 생성기체인 유머의 경우는 강세, 억양 등이 가장 빈도 높게 사용된 통역 전략이었다. 상황적 비약이 유머의 생성 기체인 경우는 강세, 억양과 말투, 스타일이 빈도 높게 사용된 통역 전략이었다. 이러한 통역사의 전략적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통역사는 가장 신속하게 표현을 강조할 수 있는 전략을 빈도 높게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의 상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통역 방식에 따른 차이는 순차통역이 확대, 과정, 강조 표현이 빈도가 높게 나타난 점만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간적 인지적 제약 하에서 가장 수월하고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통역사의 노력이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으로 추론했다. 예상과는 달리 통역사는 추가나 도착어 독자에게 더욱 친숙한 표현을 선택하는 빈도는 높지 않았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연설문에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유머가 웃음을 유발하고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지만 통역사에게는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언어적 장치 중 하나여서 연사와 청중 사이의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유머를 그 생성 기체인 비조화 그리고 비예측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유머 통역을 위한 전략을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특히, 유머에 관한

기존 연구는 상당 부분이 시트콤이나 영화 등 미디어에 나타난 유머가 주된 분석의 대상이었다. 본 연구는 연설문 중 특히 정치연설문에서 연사가 유머를 빈도 높게 이용하고 있고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유머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역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살펴보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연설에 나타난 유머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 연설에서는 다양한 유머를 빈도 높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트는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에서 오바마대통령이 디즈니의 만화영화 라이온 킹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생지와 관련한 유머를 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식 출생증명서를 검색한 검색 횟수는 44만 회이었던 반면 오바마대통령의 유머를 검색한 횟수는 6백만 회를 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 어떤 시도보다도 유머가 효과적으로 논란을 잠재우는데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정치연설에서 유머를 이용한 좋은 예로 평가했다. 연사가 유머를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점이다.

둘째, 유머 효과와 관련해서는 예상대로 많은 유머가 맥락의 부조화, 메타텍스트의 비동질성 그리고 상황의 비약으로부터 만들어진 비예측성으로 인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도가 높지 않았지만 메타텍스트의 비동질성도 유머효과를 생성하는데 활용되었는데 도착어 청중이 이 유머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배경 등의 배경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이 의사소통의 중개에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 맥락의 부조화가 크지는 않은 차이로 가장 많은 횟수를 보였고 상황의 비약도 근소한 차이로 적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연사는 유머의 다른 어떤 측면보다도 웃음 유발 효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유머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사인 오바마대통령은 정확하게 언제 틈을 주고 언제 연결하면서 발화를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서 유머 효과를 더욱 잘 살리는 연사라고 대통령의 연설문 작가인 리트도 언급을 한 바 있다.³⁾ 유머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통역사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유머의 언어구조는 많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통역사는 연사와 청중 간의 언어나 사회문화

3) The president has excellent comedic timing. Litt (2016)

적 간극을 이어주거나 배경지식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역할은 감소하고 비예측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통역하는 전략이 유효했다.

셋째, 오바마의 연설과 이를 통역한 피험자 10명의 순차통역 및 동시통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통역사는 지속적으로 표현의 확대, 과장을 통해 강조를 하는 방향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강조하고자 하는 어휘에 강세를 두거나 표현을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할 때가 있었고 도착어 청중에게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말투나 말하는 스타일의 변화를 통한 과장도 자주 등장했다. 이러한 방법을 살펴본 결과, 학생 통역사는 신속하고 많은 노력을 더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유머에 대처하는 통역전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떤 한 가지 전략이 옳다고 규정하기는 힘들다. 분석 결과, 청중이 연사의 의도 그리고 유머를 이해하기 위해 배경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통역사는 부연설명을 추가하여 출발어 연사의 의도가 소통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점을 확인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통역사가 비예측성을 강조하여 유머 효과를 강화하는 전략을 우선했음을 확인했다. 쿠르츠(Kurz)의 연구에서는 통역사는 시간적, 언어적, 정보처리 역량 측면에서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연사의 발화 속도가 빨라지면 생략, 축약 등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본 연구는 동시통역과 순차통역 데이터 모두에서 이런 점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쿠르츠가 주장한 연관성은 검증하기 힘들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유머의 특징적인 측면으로 인명을 비롯하여 시사적인 정치 이슈, 정책 등 고유명사가 빈도 높게 언급된다.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언급은 실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고 이러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통역사가 연사의 유머를 신속하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배경지식은 통역사의 예측 가능한 범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연설을 담당하는 통역사는 다양한 사회 이슈, 정책, 지지율, 주요 인사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균수 (2014) 「미디어 유머에 대한 내용분석기 1950-1990년대 미국 가족 시트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4): 86-96.
- 오정민, 김순영 (2018) 「영화 데드폴에 나타난 풍자유머 번역양상」,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6): 217-224.
- 임지원 (2007) 「유머 담화의 생성 기제와 제약 조건」, 『우리어문연구』 28: 129-157.
- Attardo, Salvatore (2002) 'Translating Humor', *The Translator* 8(2): 173-194.
- Brock, Alexander (2017) 'Modelling the complexity of humor - Insights from linguistics', *Lingua* 197: 5-15.
- Chiario, Delia (2005) 'Verbally Expressed Humor and Translation: An overview of a neglected field', *Humor* 18(2): 135-145.
- Diot, Roland (1989) 'Humor for intellectuals: can it be exported and translated?', *Meta* 34(1): 84-87.
- Leibold, Anne (1989) 'The Translation of Humor; Who Says it Can't be Done?', *Meta* 34(1): 109-111.
- Low, Peter Alan (2011) 'Translating jokes and puns', *Perspectives* 19(1): 59-70.
- Lieberman, Evan, Kimberly A. Neuendorf, James Denny, Paul D. Skalski, & Kia Wang (2009) 'The Language of Laughter: A quantitative/qualitative fusion examining television narrative and humor',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3(4): 497-514.
- Nilsen, Don L. (1989) 'Better than the Original: Humorous Translations that Succeed', *Meta* 34(1): 112-124.
- Nolan, James (2005) *Interpretation: Techniques and Exercises*.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Ornstein-Galicia, J (1989) 'Linguistic Patterns and Devices in American Jewish Humorous Discourse', *Meta* 34(1): 63-127.
- Pavlicek, Maria & Pöchhacker, Franz (2002) 'Humour in Simultaneous Conference Interpreting', *The Translator* 8(2): 385-400.
- Pöchhacker, Franz (2007) 'Coping with Culture in Media Interpreting',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15(2): 123-142.

Raphaelson-West, Debra S. (1989) 'On the feasibility and strategies of translating humor', *Meta* 34(1): 128-141.

Ribas, Marta Arumi (2012) 'Problems and Strategies in Consecutive Interpreting: A Pilot Study at Two Different Stages of Interpreter Training', *Meta* 57(3): 812-835

Xu, Zhen (2014) 'Contextual dimensions in interactional humor: How humor is practiced in selected American and Chinese situation comedies', *Journal of Pragmatics* 60: 24-35.

Litt, David (2016) '농담할 줄 아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랑 받는다.' New York Times. 2016년 5월 10일자 29면

Obama, Barack (2011)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speech.
<http://www.c-spanvideo.org/program/Wh...>

Obama, Barack (2016)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speech.
<https://youtu.be/TO9d16c2XRM>

[Abstract]

Humor in Political Speeches and Interpreting Strategies

Lee, Migyong
(Kyung Hee University)

Humor can be an effective tool in political speeches. Humor, though, is a challenge for interpreters who need to medi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disparate Source Language and Target Language evoking same playful response among the target audience. With the aim to propose strategies for interpreting humor, this study first looks into how humor is created and what triggers the humorous effect. Second, the study conducts an analysis of 2011 and 2016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speeches delivered by President Obama and their Target Language interpretations to explore strategies employed by ten student interpreters studying at GSIT in Seoul. The analysis shows humorous effect is created by unexpectedness that stem from incongruity in context, meta-text and situation. In order to be received as funny, humorous discourse needs to be unexpected within the predictability of the hearer.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interpreters will resort to interpreting strategies that will maximize humorous effect - thus, amplification, overstatement and emphasis. Unlike the initial assumption that interpreters will find strategies to fill the knowledge gap between SL speaker and TL audience, interpreters opted to amplify humorous effect by means such as using paralinguistic elements, adding adjectives and adverbs, and choosing more effective word choice.

- ▶ Key Words: political humor, interpreting strategies, incongruity, amplification, unexpectedness
- ▶ 주제어: 정치 유머, 통역 전략, 부조화, 확대, 비예측성

이미경

경희대학교 응용영어통번역학과 부교수

migyonglee@khu.ac.kr

관심분야: 통역교육, 통역전략, 통역연구방법론

논문투고일: 2019년 8월 31일

심사완료일: 2019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8일